

‘교통강성’으로 도약하는 산동성

고속철도·항만·저탄소 물류 등 전방위 혁신 가속

산동성이 ‘교통강성’으로 도약하며 고속철도, 고속도로, 항만 등 인프라 건설에서 저탄소 물류까지 전방위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도상궤도 시공 단계에 들어선 웡상(雄商)고속철도 하택(菏泽) 구간, 산동성 첫 8차선 고속도로 휴계소 련결 복선교 합룡(合龙) 완료, 한창 시공중인 신만복하(新万福河) 복합 2기 프로젝트... 산동성에서는 다수의 중대 교통 프로젝트가 추진중이다.

2022년 5월, 산동성은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건설하는 ‘교통강국 성역 시범구’로 선정됐다. 이를 계기로 ‘교통강성’ 전략을 수립한 산동성은 ‘도로-철로-수로-항공’을 통합 관리하는 대(大)교통체계를 꾸준히 보완하면서 교통운송 통로 개통, 촘촘한 교통망 련결, 교통중추 구축 등에 힘써왔다.

산동철도투자총공사 건설관리부 양서생(杨书生) 부장은 최근 수년간 산동성에서 다수의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고속철도 운영거리가 3,000킬로미터를 돌파했다면서 그 밖에도 계남-빈주(滨州), 계남-조장(枣庄)을 련결하는 고속철도를 비롯해 총 1,340킬로미터 거리의 고속철도가 건설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산동성교통운수청 수운처 한명(韩明) 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북경과 항주를 잇는 경항(京杭)



2월 27일, 청도 최초의 해상 저고도 물류 항로가 개통된 후 령산도(灵山岛)에서 리륙한 드론이 청도 서해안신구 적미애(积米崖) 부두에 착륙하고 있다. / 신화넷

운하의 동평(东平) 구간이 3급 수로에서 2급 수로로 격상되면서 단일 선박 적재량이 1,000톤에서 2,000톤으로 늘었다. 산동성내 내륙수로중 컨테이너 항로는 26개, 대외무역 내륙 련결선은 4개로 우리 나라 152개 도시와 세계 16개 국가(지역)를 련결하고 있다.

고속도로는 산동성의 대표적인 교통 인프라다. 2022년 이후 산동성에 16개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총 개통 거리는 8,700킬로미터를 넘어섰다. 그중 6차선 이상 도로는 40%에 달한다.

올 2월말에는 청도 최초의 해상(륙지-섬) 저고도 물류 항로가 개통되었다.

〈산동성 저고도 경제 고품질 발전 위한 3개년 행동방안(2025년-2027년)〉에 따르면 산동성은 2027년까지 35개 일반 공항, 400개 디지털화 저고도 항공기 리착륙 플랫폼을 건설하고 50개 이상 시내 드론 항로와 20개 이상 도시간 드론 물류 로선을 개통할 계획이다.

최근 수년간 산동성은 도시-농촌 융합, 지역 상호 련결을 이룬 인프라 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인적·물

류 이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얼마전 산동성의 첫 ‘도로-내륙수로-해운’을 아우르는 복합운송 통로가 정식 개통되었다.

“도로-내륙수로-해운” 복합운송을 리용하면 하역 회수가 감소되면서 화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덕분에 기업의 물류비를 15~20% 절감하고 탄소배출을 약 30% 줄일 수 있다.” 산동성항구그룹 발해만항시장마케팅센터 업무주임 왕전중(王传中)은 ‘도로-내륙수로-해운’ 복합운송을 리용해 수출되는 화물이 늘면서 산동성 제조업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동성 교통 인프라의 스마트화, 녹색·저탄소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발해 연안에 위치한 유방(潍坊) 항에는 풍력발전기가 우뚝 솟아있고 태양광 패널이 즐비하다. 부두에서는 신에너지 트럭과 자동화 크레인의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유방항은 중국선급사품질인증회사(CCSC)가 수여한 ‘탄소중립평가인증서’를 획득함으로써 업계 선도의 ‘탄소 제로 항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산동성교통운수청 우영생(于永生) 청장은 “교통운수 구조를 꾸준히 최적화하고 운수 장비의 저탄소 대체, 에너지 효율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교통 인프라의 저탄소 건설·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신화넷

상해 포동신구

‘글로벌 혁신 의약기기 최초 개발지’ 구축



중국(상해) 자유무역시범구 장강구역 일각 / 신화넷

상해시 포동(浦东) 신구가 생물 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포동신구는 최근 〈포동신구 생물 의약산업단지 기능 향상 방안(2025년-2027년)〉을 발표, 글로벌 혁신 의약기기의 최초 개발지, 과학자 혁신 창업의 우선 선택지, 제도 개혁의 최초 혁신지 등 구축을 제안했다. 방안은 또 2027년까지 포동신구 생물 의약산업 규모를 5,000억위안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제시했다.

최근 수년간 포동신구는 세계급 생물 의약산업 클러스터 건설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곳의 생물 의약산업 규모는 2020년의 2,408억위안에서 지난해의 4,100억위안으로 확대되어 년평균 복합성장률(CAGR) 14%를 기록했다.

포동신구는 글로벌 혁신 의약기기

의 최초 개발지 구축을 위해 대학교 연구소, 연구기관, 다국적 기업의 연구개발(R&D) 센터, 대기업의 개방형 혁신센터, 고품질 인큐베이팅(孵化)센터 등 고에너지 혁신 주체를 유치할 방침이다. 또한 장강(张江) 대규모 과학시설 등과 련동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년평균 100개 이상의 생물 의약 신생 기업을 증가할 계획이다.

포동신구 서래(徐徠) 부구장은 앞으로 정책 실행 및 실천에 박차를 가하여 대기업 육성 방안, 산업단지 서비스 방안, 첨단의료기기 발전 방안, 생물 의약기업 해외 진출 지원 전문 서비스 패키지 등 부대정책을 제정, 출범함으로써 기업에 더 빠르고 좋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화넷

향항의 안정적 경제성장, 소비지출 뒤받침할 것

향항의 안정적 경제성장과 활발한 금융시장이 소비지출을 뒤받침할 것이라고 향항특별행정구정부 재정사(司) 진무파(陈茂波) 사장이 3일 밝혔다.

진무파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향항정부가 곧 발표할 2분기 향항

음식점의 총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부동산 거래 역시 지난 분기 대비 뚜렷하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향항 경제는 2분기에 3.1% 성장률을 기록하며 10분기 련속 성장세를

이거다. 소매 판매는 지난해 동기 대비 0.3% 증가했다.

진무파는 향항의 관광·소매·외식업계가 소비자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7월 31일 막을 내린 ‘향항 축구 페스티벌 2025’에는 아

스널, 토트넘 홋스퍼, 리버풀 FC, AC 밀란이 참가해 약 10만명의 축구팬을 불러모았다.

진무파는 앞으로 정부는 업계와 협력해 더 많은 대형 행사를 개최하여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 신화넷

신강, 올해 중국-유럽 화물렬차 운행 1만편 돌파



2024년 12월 25일, 중국-유럽 화물렬차 한대가 홀고스철도통상구를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향하고 있다.

7월 28일 기준, 올해 신강위글 자치구 북서부지역의 주요 철도 물류 거점인 알라산구(阿拉山口) 통상구와 홀고스(霍尔果斯) 통상구를 통과한 중국-유럽 화물렬차가 1만편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년간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지속적 심화와 신강지역의 대외개방 확대에 따라 신강 철도부문과 우룸치세관은 중국-유럽 화물렬차 서부 경로의 운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왔다.

중국철도우룸치국그룹에 따르면 올 들어 알라산구통상구와 홀고스통상구를 경유한 중국-유럽 화물렬

차는 전국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글로벌 공급사슬의 안정성과 원활한 운영을 강력히 뒤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알라산구통상구는 총 124개의 중국-유럽 화물렬차 로선을 운영, 독일·폴스까 등 21개 국가로 통한다. 홀고스통상구는 89개 로선을 운영, 18개국의 46개 도시 및 지역으로 통한다.

한편 7월 28일 기준, 알라산구와 홀고스의 올해 화물 처리량은 각각 977만톤 이상, 796만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7%, 2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신화넷



세계 최초 로봇 6S 매장 심수서 오픈

세계 최초 로봇 ‘6S(판매·부품·서비스·조사·맞춤 판매·공동구매) 매장’이 7월 28일 광동성 심수시 룡강(龙岗) 구 로봇테크장에서 문을 열었다.

사진은 이날 ‘로봇 6S 매장’에서 로봇과 교류하고 있는 관람객들. / 신화넷

朝夕奔梦

友诚敬爱法公平自和文民富
善信业国治正等由谐明主强